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내부 안정 및 체계화 통한 고객 만족피할 터



◀ 조의수
천세도요기계(주) 대표이사

천세자동기(주)가 일본 최고의 포장기계업체인 동양기계제작소와 기술 및 자본제휴를 체결하면서 천세도요기계(주)로 사명을 변경,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천세도요기계는 펌프 생산업체인 천세산업의 포장기계업무만을 분리해 1994년 천세자동기(주)로 법인 설립됐으며 그간 포장기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온 조의수 사장이 이를 이끌게 됐다.

“천세산업이 1987년 새로운 분야인 포장기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됐으며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장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쌓게 됐고 이에 포장기계에 대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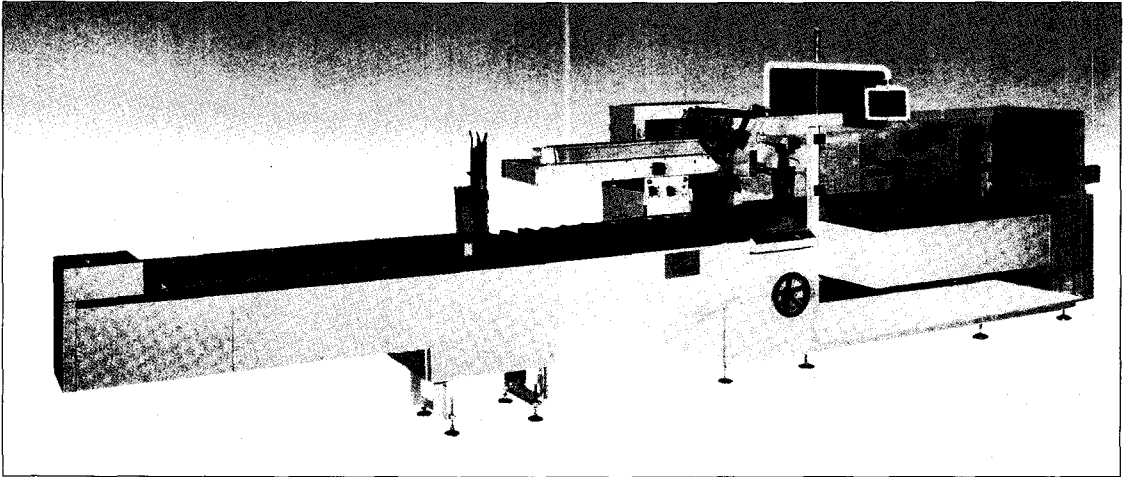
심을 갖게 됐습니다”라는 조 사장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포장기계 분야에 있어서 남다르게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천세도요기계는 카톤포장기계, 전자동 오버랩 핑머신, 열수축포장기, 케이샤 등 포장기계를 생산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1995년에는 카토너 우수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카톤성형기 CF-60, 중간박스카토너 OT-9, 중속형카토너개량형, 액체스티크제품자동계수·집적카토너라인 등 매년 한 가지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분당 300개의 포장능력을 갖춘 발코니타입 고속형카너를 개발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EM마크 우수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으로부터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1년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렇듯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천세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포장기계대상과 산업자원부 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2회), 안산상공회의소 기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천세도요기계(주)의 주력품인 카토너

내부 안정을 통해 고객 만족에 기여

2002년 12월 천세도요기계는 직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최상의 제품 생산을 위해 대지 500평, 건평 380평의 사옥을 건축해 확장이전을 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의 공장을 둘러보면 작업환경이 국내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하고 공장 주변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 직원들의 정신적으로 여유를 주고자 하는 배려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라며 “이에 직원들의 최상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어 ‘눈을 뜨면 가고 싶은 공장’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1층에서는 천세의 기계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홀과 직원들의 휴식 공간 및 미팅룸이 있으며 2층에는 각 부서별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루프가든을 만들어 시화호

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와 휴식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조 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이는 작업 환경 조성은 물론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며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중 17명으로 구성된 천세 임직원은 리더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분류해 소그룹체로 운영되고 있다.

“한 그룹을 5~6명으로 구성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 달에 한번씩 각 가정을 방문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 보다는 ‘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단합과 화합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조 사장은 설명했다.

천세는 신입사원이 입사할 경우 후견인을 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천세는 입사일로부터의 경력을 기준으로 초·중·



◀ 천세의 공장 내부

고 기능자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능력을 부여해 임직원들이 열심을 다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리더그룹은 년 초 1박2일의 워크를 통해 회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참여경영을 중심으로 한 조 사장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조 사장은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가장 기본으로 꼽았다. 이는 회사와 직원간, 회사와 고객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품 생산에 있어서 기능, 성능, 편리성에 대해 차별화를 꾀하며 항목별 검사종합차트를 만들어 출하 전 최종적인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직한 제품 생산을 기본으로 고객에 대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천세는 신뢰 할 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고객 욕구에 부응한 기술 개발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기계로 인해 포장재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고객의 욕구 충족과 품질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기술을 통해 기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문제가 발행했을 시 문제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 사장은 강조했다.

"초창기 M사의 볼펜을 12개씩 계수해 포장하는 정량 자동 공급 기계를 납품했는데 내용물이 워낙 까다로웠던 터라 공급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6개월간 M사로 출근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 이 제품이 결국은 첫 특허제품이 되었습니다"라는 조 사장은 그 당시를 회상



▲ 천세의 신사옥 전경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때문에 천세는 약 10여년간 준비해 일본의 포장기계 전문 업체인 동양자동기계(다른 말로는 도요라고 한다)와 지난 1월 29일 기술제휴를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동양자동기계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 설비와 천세에서 생산하던 계수부터 상자에 넣는 설비를 합쳐 전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고객이 따로 구입을 해야 했던 번거러움을 덜어 하나의 기계로 전 공정이 이뤄지도록 해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조 사장은 “동 업계들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국내 포장기계업계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내 포장기계의 이미지를 높여 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때문에 상호보완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국내 포장기계 분야 발전을 꾀하

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 사장은 강조했다.

천세는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보다는 하나를 만들어도 섬세하고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좋은 질의 포장기계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개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 기계를 바탕으로 여기에 좀더 기능을 부여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기술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천세는 오는 2005년 경에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포장기계메이커로서 자리를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생산을 통해 비전 있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천세가 포장기계 업계의 큰 자극제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